

성장 더하고 행복 곱하기

사하구 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 경주 워크숍을 다녀와서

사하구는 평생학습관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17개 동아리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경주 일원에서 워크숍이 열렸다. 낙동초등학교를 출발한 버스는 경주 양남 주상절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동아리 회원들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안 산책로를 걷는 기분이 더없이 상쾌하다고 했다.

‘배움과 성장 더하기 동행으로 행복 곱하기’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워크숍은 유명 강사들의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는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기영하 교수의 ‘지역발전과 주민 참여’였다. 4차 산업시대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내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끼리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영하 교수는 동네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잘 살게 하려고 동네소핑을 한다고 한다. 내가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근린생활권이 보장되어야 지역사회가 잘 살 수 있다고 했다.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하면 사하구도 더 좋



은 삶의 터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장 밑바닥의 씨알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삶의 질을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이광재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제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그리고 시민’이라는 주제로 청년 실업과 실버 창업

에 대해 강의 했다. 세계전경련연합회는 앞으로 기업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생산품을 사 주지 않으면 기업은 망하니 서로 연결이 되어 주는 네트워크가 대세라고 강조했다. 또 4차 산업은 창의성이 적합한 산업이라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은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이 행복해지는 창조도시 사하의 발전과 활동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아리 연합회의 화합의 밤도 이어졌다. 각 동아리 소개와 장기자랑도 있었다.

특히 주민강사들과 모듬북 아라팀의 에너지는 워크숍 마지막을 뜨겁게 달궜다. 둘째 날은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경주 남산 투어가 진행되었고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경주 워크숍은 동아리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했고 배움을 통한 성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가 되었다.

이경녀 평생학습 구민기자
leekn61@hanmail.net

한글 배움 詩로 꽃피워

9월 문해의 달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사하구 김길자 어르신 등 6명 수상

기억이 되는 약 김길자
나는 온해부터 사하구청에서 공부
시작 했다 기억이 되는 약이 있으면
좋게다 왜냐면 나의 소원은
반아쓰기서 만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힘들다
열심히 외워도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다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보다
기억이 되는 약이 있으면 조깅



지난 9월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맞아 전국적으로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이 열렸다. 9월 28일 부산 시청에서도 ‘제4회 부산지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이 교육부 주최로 열렸다. 이번 시화전은 문해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우수 시화 작품을 시상하는 자리였다. 여러 평생학습기관에서 문해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이야기가 한 자리에 모였다.

열림 콘서트를 시작으로 연극 공연과 강연 등 볼 거리와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이어졌다. 시청 로비에는 입상한 수강생들의 우수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처음 만져보는 크레파스가 신기하고 처음 연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옛날에는 눈을 감고 살았다면 이제는 세상이 다 내 눈과 마음에 들어 와 있다’고 표현한 시화는 빼빼빼빼한 글씨지만 진솔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사하구에도 배움의 열정과 성실함으로 입상한 수상자들이 6명이 있다. 그

중 평생학습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김길자(신평동, 78세) 어르신이 우수상을 받았다. 그녀는 올 1월부터 평생학습관에서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우연히 경로당 벽에 붙어 있는 정보지를 보고 물어 물어 학습관으로 전화를 한 게 배움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한글로 시를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자가 배워 무엇에 쓰겠냐며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니게 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하셨다. “운이 좋아 상을 받았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배울 것이다”라며 겸손해 하셨다.

문해교육을 받았던 수강생들은 한글을 배워 손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책도 읽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제 길거리의 간판도 볼 수 있고 은행과 관공서도 혼자서 일을 볼 수 있어 편하고 좋다고 하셨다.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비문해

자들에게는 큰 용기와 의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수강생들에게 문해교육은 단순히 글자라는 개념을 넘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의미한다. 비문해자들은 용기가 없거나 방법을 몰라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기관의 분발을 기대한다.

김정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kjs5328@hanmail.net

사하구 성인문해교육기관

| 기관명 | 연락처 |
|------------|----------|
| 사하구 평생학습관 | 220-4807 |
| 신평1동 주민센터 | 220-5212 |
| 장림1동 주민센터 | 220-5272 |
| 다대1동 주민센터 | 220-5356 |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265-9471 |
| 구명종합사회복지관 | 263-3045 |
| 다대종합사회복지관 | 264-5420 |
|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 293-2688 |
|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 293-9544 |
| 신평사랑채노인복지관 | 207-9545 |
| 열린시민터 해봄 | 292-2944 |
| 형설모두학교 | 293-2047 |

평생학습 글로벌시대! 세계도시와 함께하는 사하구

사하구가 국제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사하구는 2013년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에 가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에도 가입하였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은 도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국제기구로 현재 37개국 493개 도시가 가입해 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GNLC)는 학습도시 간 우수사례 및 정책 공유, 협력 증진을 통한 전 세계의 평생학습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네트워크 협의체로 28개국 115개 도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지난 달에는 IAEC 사무총장 일행의 감천문화마을 방문과 아·태 지역회의 참가, 제3회 GNLC 국제회의 참가하여 사하구 평생학습을 알리고 우수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앞으로도 사하구가 국제사회에서 평생학습도시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IAEC 사무총장 마리나커널스 감천문화마을 방문

지난 달 15~16일 양일간 감천문화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하였다.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사무총장과 회원도시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부시장 일행이다.

감천문화마을은 지난해 IAEC로부터 세계3대 우수교육도시상을 수상하였다. IAEC 사무총장은 사하구가 우수교육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로 감천문화마을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의 롤모델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공을 이끌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다함께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말했다.



다. 아울러 교육을 통해 주민의 삶과 주민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며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둔다고 하였다.

일행은 바람이 많은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감천문화마을의 작은 박물관, 하늘마루, 작가공방 등 골목골목을 둘러 보았다.

감천문화마을의 변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던 작은 박물관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또한 '2017 부산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방가방가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며 한국식 온돌문화를 체험해 보고 감천문화마을의 야경도 즐겼다.

내년 IAEC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포르투갈 카스카이스 조아오 비토리오 부시장은 감천문화마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에 카스카이스를 방문해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IAEC 아태네트워크 지역회의, 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도시 회의 참가

사하구는 지난 달 14일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제8회 IAEC 아·태네트워크 지역회의'에 참가하였다. 사하구를 포함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태지역 13개 도시는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도시의 다짐'이라는 주제로 시장단 원탁회의를 열었다. 각 도시에서 추진하는 세계시민교육 정책, 그리고 더 보완되어야 하고 필요한 부분, 앞으로 교육도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세계시민교육 수성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수성공동선언문'에서는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에 가치를 두고 효과적인 정책을 고안해 내기로 했고 인종, 계급,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교육이 이뤄지는 교육도시의 모든 영역에서 인류 공동체를 위한 정책을 세계시민교육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아일랜드 코크시에서 열린 '제3회 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도시(GNLC, Global Network of Learning Cities) 회의'에도 참가하여 회원도시간의 교류를 넓혔다. 3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GNLC에 가입한 세계 200여개의 회원도시들과 유네스코 회원국, 국제교육 및 평생교육 실천가 등이 참가해 '세계적인 목표, 지역차원의 실천'을 주제로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사하구 평생학습과
deok501@korea.kr

이주여성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다대도서관의 아주 특별한 강좌



다대도서관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인문학강좌를 연다. 그동안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컴퓨터, 취업, 한국문화 익히기 등 실용적인 프로그램은 많이 있었지만 인문학 강좌는 거의 없었다. 그런 점에서 다대도서관이 의욕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나부터 비움, 다문화로 채움, 함께 꽃 피움'은 의미가 깊다. 이번 인문학 강좌는 이주여성 스스로 다문화 차별을 인식하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번 강좌에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온 이주여성 10여 명이 참여한다. 이주 2개월부터 7년까지 학력, 만족도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통역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9월부터 시작한 '나부터 비움' 과정은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이주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특강에 나선 탁경아 강사는 실팽이 놀이를 통해 가족·이웃과 소통하는 실마리를 제시했다.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육아와 가족 사이의 소통 문제였다. 실팽이를 돌리면서 가슴 속의 응어리를 털어놓는 시간은 다소 길었지만 일대 일로 진행돼 만족감이 컸다.

탁 강사는 이주여성들의 고민을 듣고 '나 전달법'을 도입하여 소통하는 기술을 설명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받아쓰기를 못해서 영영 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울었다."는 류정희(46세·다대동) 씨는 엄지 척을 하며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았다고 좋아했다. 베트남에서 온 찐티투이아인(23세) 씨는 "남편이 잘해주고 이해해줘서 행복하다. 그래서 주말부부지만 외롭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다."라고 말했다.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참여하는 그녀는 주위의 베트남 친구를 강의에 데리고 나오는 열정파이다.

다문화 이해 교육 전문 강사 양근숙 씨는 "결혼 이민자들이 매우 다양해졌다. 눈높이를 맞추어 이해하고 관심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다대도서관 프로그램 담당자 박유정 씨는 이주여성들의 소리를 듣고 원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해보겠다는 포부도 밝힌다.

다문화로 채움과 함께 '꽃 피움'의 과정은 12월까지 이어진다. 다대도서관이 추진한 이번 강좌는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 강의 환경이 다소 아쉽다. 젊은 이주여성들이 강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시설 등 편의 제공에 더욱 신경을 쓰면 어떨까. "남편과 말하기도 싫어요. 소통 안 돼요."라며 도무지 마음을 열지 못했던 이주여성들이 모처럼 의미있는 교육을 만났다. 배움과 채움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강좌 운영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아름다운 그대

“돈도 벌고 보람도 느껴”



이미정 행복학습매니저를 만나다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행복학습센터에는 행복학습매니저 이미정(52세·괴정동) 씨가 있다. 그녀는 2014년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한 행복학습매니저 양성과정을 통해 행복학습매니저가 되었다. 그녀는 남의 말을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일을 좋아한다. 학습자들과 평생교육사의 중개역할을 하며 자기개발을 돕는 일이 그녀가 좋아하는 일이다. 행복학습매니저의 일을 하면서 평생교육사가 된지 알고 싶어 공부를 한 결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따다. 상담에 관심이 있어 미술심리 1급 자격증을 따기도 했다.

문해교육에 대한 관심은 2013년 YWCA 모니터 요원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비자 피해 사례로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피해 예방을 위해 복지관과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뜻밖에 어르신들이 글을 몰라 피해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어르신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본격적으로 교육대학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지금은 한국어 교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 낙동초등학교, 하단초등학교 등에서 이주해 온 아이들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동요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노래에 나온 낱말을 기억해 써보는 한글공부는 재미있어 보였다. 공부에 관심이 없던 남자아이도 칠판에 곧잘 낱말을 쓴다. 가장 낱말을 많이 쓴 여자아이는 상으로 받은 사랑 하나에 환호한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교재를 찾고 노래도 사탕도 준비하면서 즐겁다. 또한 강의를 나가고 있는 부산 YMCA 반송복지관 장애인 아이들이 문해 시화전에서 입상했을 때 크게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다.

그녀는 “관심가는대로 공부하며 따라갔을 뿐인데 운 좋게 일자리카지 주어졌다.”고 겸손해 한다. 그녀의 월수입은 2백만 원 안팎이다. 학습매니저로 많은 강사를 만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한다. 그녀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담당자에게 조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 행복학습매니저 동아리 회장(행복 디딤돌)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결국 평생교육으로 연결되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평생교육사의 길에 들어선 그녀의 끊임없는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이미성 평생학습 구민기자
merrygold2971@hanmail.net



사진으로 듣는 평생학습 소식

일터에서 배우는 사진찍기 수업



조선업체 (주)강남을 평생학습이 찾아갔다. 이번 강의 주제는 ‘추억을 담은 사진 찍기’다.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힘든 회사 생활속에서도 수강생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다. 열정

만큼 수업태도도 진지하였다. 방기대 씨는 평소 사진을 찍으면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이번 사진수업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찍기 수업을 통해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남기길 기대한다.

일터장터로 찾아간 평생학습



10월14일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일터장터와 함께 사하구평생학습을 알리는 홍보 활동이 열렸다. 평생학습 설문지를 작성하고 손거울, 가면, 3D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가졌고, 직접 체험하는 어린이들도 재미있어 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들은 손거울에 관심이 많았다. 배소울(초1) 양은 선물로만 받아보던 손거울에 캐릭터 색칠을 하면서 직접 만들었다는 자신감으로 즐거워했다. 배소울 양 어머니 박미숙(50세,다대동) 씨는 평생학습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며 기회가 되면 직접 참여해 보고 싶다고 했다.

손현아 평생학습 구민기자
ssnyen@hanmail.net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문 명리학

낮설지만 알아갈수록 흥미로운 공부

“선생님, 질문해도 됩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수강생의 질문이 이어졌다. 평소 잘 들어보지 못한 낯선 학문이다 보니 수강생의 질문은 수업 중에도 계속 되었다. 김양희 강사는 성실하게 답변하며 수업을 이끌어 나갔다. 어려워하는 수강생들을 배려해 수업 초반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였다.

“오늘은 ‘천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천궁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앞으로 배울 공부가 쉬워집니다.”

김양희 강사는 가로 세로로 연결된 아홉 개의 칸에 한자와 숫자를 적으면서 천궁에 대해 설명하였다. 수강생들은 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중했다. ‘기문 명리학’이 무엇이기에 수강생의 열기로 강의실이 꽉 찼는지 궁금했다. 명리학은 명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주로 사주 명리학과 기문 명리학을 말한다. 기문 명리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아는데 뛰어나다. 길흉화복, 질병, 학교 운, 직업, 인연법 등에 이용한다. 나를 알고 조심 하면 나쁜 것은 피해가기도 하고 예방할 수 있다. 현재 박사학위에 도전 중인 김강사는 기문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어느 분야의 학문과 인연이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문 명리학 수업은 8월 30일부터 주 1회로 11월 23일까지 계속 된다.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사주

명리학, 음양오행, 철학에 대한 강좌 개설을 요구하는 주민이 많았다며 주민들의 기대했던 만큼 알찬 강의가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 사주 명리학 강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문 명리학이 더 이롭다고 생각되어 선택하였다고 했다.



예전에 직업으로 오랫동안 사주 명리학을 공부 해 왔던 한 수강생은 기문 명리학에 푹 빠져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수강생 이은진(49·하단1동) 씨는 기문 명리학을 전혀 몰랐는데 호기심이 생겨 수강하게 되었다며 “알아갈수록 점점 흥미롭습니다. 아직은 초기라서 잘 모르겠지만 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으리라 믿으며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마도 기문 명리학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답답하거나 인간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다른 해법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하숙자 사하구민 기자
ssaksil@hanmail.net



모듬북으로 소통하고 정을 나누는 사람들

봉사활동을 이어 나가는 동아리 '모듬북아라'

지난 9월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행복콘서트가 있었다. 이웃과 장애인을 초청해 열린 공연 마지막은 10여명이 3개의 모듬북으로 연주하는 '모듬북아라'가 장식했다. 신나는 두드림에 관객들은 박수로 환호했고 서로 하나가 되는 울림을 주었다.

동아리 '모듬북아라'는 을숙도문화회관 문화강좌 수업을 수료한 회원들이 모여 2010년 6월에 창단했다. 50대부터 60대까지 사하구민과 사직동, 해운대 주민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짧게는 3년, 길게는 8년 활동 중이다. '아라'는 넓은 바다, 큰 바다를 의미하며 모듬북은 전통오공무에서 변형된 퍼포먼스 타악기이다. 모듬북아라는 취미활동으로 시작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찾아가는 음악회, 복지관, 사하구자원봉사자대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식전공연 등 사하구 뿐만 아니라 부산 전역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쳤다.



모듬북아라 회원은 모두 전업주부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12시 괴정의 동네방네학습관 소리너룸에서 연습한다. 무대에 오르기 전 많은 연습으로 힘들긴 하지만 관객들이 자신들의 공연에 하나가 되어 소통하는 순간 에너지를 얻

는다고 했다. 특히 장애인이나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공연에 보람을 느낀다. 3년째 5월 어버이날에 신평동 경로잔치에서 공연을 펼쳐왔는데 그 어떤 공연보다 보람이 크다고 했다. 시민체육공원 버스킹은 작은 공연장에서 시작했으나 반응이

좋아 이전 큰 공연장으로 옮겨 공연한다.

권인선 단장은 "다대 낙조분수에서 공연이 있을 때 다대현대아파트에서 장애인들이 더운 날씨에도 두 코스 거리를 휠체어로 타고 와 감상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나눔 공연을 더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모듬북아라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사하구민을 위해 재능기부도 계획 중이라고 한다. 신입회원도 모집 중이다. 모듬북을 배우고 봉사할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해 모듬북의 두드림이 사하구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문의 : 모듬북아라단장 010-8831-7359

김민정 평생학습 구민기자
cute0114@hanmail.net

배우는 사람은 즐겁고 가르치는 사람도 행복하다

주민강사가 찾아가는 행복 학습나눔 사업



사하구 평생학습관이 진행하고 있는 학습 나눔 사업은 배운 것을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평생학습관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어 양성된 전문 인력을 주민 강사로 위촉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 학습 나눔 사업에는 주민 강사 41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강사들은 행복 학습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원예 수업과 손발 마사지, 문해 교실과 시니어 보드 게임, 실버 레크레이션 강의를 한다. 아동들에게 유익한 북아트와 종이 접기, 탈무드 창의 영재놀이와 같은 맞춤형 강좌를 준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기도 한다.

9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 장림동 대동아파트 경로당에서는 나눔으로 행복해지는 평생학습 수업이 한창이었다. 도리도리 운동과 마음 챙김 호흡은 할머니들을 깔깔거리는 동심의 세계로 초대했다. 신문지 접기로 만든 모자를 쓰고 노래하고 춤추는 동안 아이들처럼 즐거워했다.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경로당 수업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정정자(68세·장림동) 할머니

는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 와서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아픈 것도 다 잊어버려요. 선생님 얘기도 재미가 있고 또 치매도 예방된다고 하니 열심히 와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아픈 몸을 의자에 의지한 채 열심히 참여하고 있었다.

"건강하신 분들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은 작은 동작도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다 보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게 보람이고 행복이죠." 사하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사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파견된 최영호(57세·다대동) 강사는 100세 시대를 사는 어르신들의 즐겁고 건강한 삶에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일한다고 했다. 그리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 사업이 연중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9월 27일 은항 지역아동센터 강당. 또 다른 학습 나눔이 진행되었다. "줄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라는 주민강사의 질문에 초등학생들은 "키가 커져요! 튼튼해져요!" 라고 일제히 대답했다. 매주 수요일 1시간 하는 음악줄넘기 수업이 아이들에게겐 재미있는 시간이다. 체육지도사 출신인 오현정(41세·하단동) 주민강사는 평생학습관의 강사 역량 강화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과 인연을 맺었는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 학습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학습 나눔 사업은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시간과 장소의 폭도 넓다. 학습 나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면 평생학습관을 찾을 수 없었던 구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된다.

김광숙 평생학습 구민기자
secan57@hanmail.net

전국 지자체 최초 초/중/고 검정고시 졸업·독학학위 취득 온라인강의 수강료 지원

사하구-부산MBC 업무협약 수급자 등 무료, 일반 구민 50% 할인

사하구민은 검정고시 졸업과 독학학위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무료 또는 저렴한 수강료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사하구와 부산MBC는 9월 4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중·고 졸업 검정고시 및 대학 졸업 독학학위취득(독학사) 교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 강좌는 iMBC부산캠퍼스(<http://bs.imbccampus.com/saha>)에서 회원가입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새터민, 소년소녀가장, 기타 국가생활지원대상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사하구민들의 경우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를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정고시 강의를 신청하는 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선착순 30명에게 교재비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평생학습관 방문접수만 가능

문의 : 평생학습관 (220-4117~8)